

장성 황룡강 보, 경관·생태계 개선 '일석이조'

운슬보·용작보 설치...수변 생태계 긍정적 효과 환상적인 야경에 '제2의 황룡강 르네상스' 기대

장성 황룡강에 새로 설치된 두 개의 가동보가 경관 개선은 물론 수변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황룡강 일원에 운슬보와 용작보 등 가동보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가동보는 하천 수위와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유수단면 일부 또는 전부를 차단하고 그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물로 일반적으로 수문을 설치하지 않아 홍수 때 스스로 넘쳐 흐르도록 되어 있는 고정보와 비교해는 수리구조물이다.

황룡강 상류지점인 서삼장미터널 하부에 조성된 운슬보는 높이 1m, 폭 88m로 장안교와 개천인도고 인근까지 물을 모을 수 있다. 집중 호우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수문을 개방해 홍수를 예방한다.

또 강 바닥의 퇴적도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어, 수량 확보 및 수질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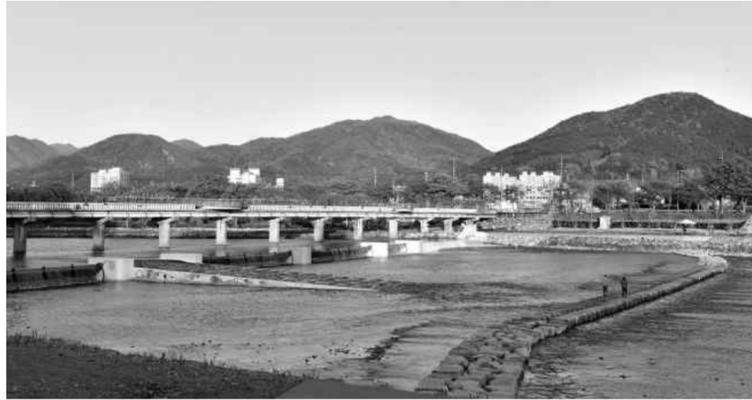
운슬보는 '반짝이는 잔물결'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이다. 운슬보는 날개 모양의 구조를 지녀, 강물이 그 위를 파도 치듯 흐르게 설계돼 있다. 일반적인 강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물결이 만들어지며, 보 하단부에 조명시설이 설치돼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한다.

운슬보에서 황룡강을 따라 1.2km 가량 내려간 지점에는 용작보가 설치됐다. 전래동화 속, 까마귀와 까치가 은하수에 놓는 다리인 '오작교'에서 착안했다. 고무 형태의 가동보로 폭이 무려 110m나 된다. 황룡행복마을 인근에 조성돼 있으며 1.8m 깊이까지 물을 모을 수 있다.

주변 경관을 고려한 물놀이와 조명시설 설치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물이 말라 건천이 된 인근 지역 생태계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 주민 고모(71)씨는 "가동보가 설치된 이후 강에 물이 차고 다양한 조류가 관찰되는 등 황룡강에 확연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 황룡강에 새로 설치된 가동보가 경관 개선은 물론 수변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삼장미터널 하부에 조성된 운슬보. <장성군 제공>

유두석 장성군수는 "운슬보, 용작보의 설치로 황룡강 방문객들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으며, 수질 개선과 생태환경 보존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면서 "다섯 가지 주

제 정원과 황미랜드 테마공원 조성 등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제2의 황룡강 르네상스'를 열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샤인머스켓 재배농가 대상 강진군, 현장 전문교육 추진



강진군이 샤인머스켓 재배농가 및 관심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샤인머스켓 포도 생산을 위한 전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올해 '1시간 1특화작목 육성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교육은 포도 현장 전문가를 초빙해 농작업 일정에 맞춘 이론 및 현장교육을 겸하고 있다. 군은 경북 대경포도영농조합법인 박재현 박사를 초청해 고품질 재배기술을 기본으로 시기별 영농 기술 시연을 진행한다.

화수정리 방법, 적심, 생장조절제 처리 등 당면 영농작업 위주의 실습교육과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다.

김춘기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론교육과 더불어 현장 중심의 실습교육을 통해 샤인머스켓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와 품질 향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현재 7ha에서 20여 농가가 샤인머스켓 재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샤인머스켓 연구회를 구성해 각종 재배정보 기술을 공유하고 유통망을 확보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군 '행복한 가족사진' 운영 6학년 아동 17가정 대상

함평군은 1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드림스타트 6학년 아동 17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유대감 향상을 위한 '행복한 가족사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함평군 드림스타트와 관내 업체인 원안사진관 후원(후원율 34%)으로 진행되며, 가족사진 촬영 후 아크릴 액자(60*50cm)를 제공한다. 촬영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참여 가족들의 희망에 따라 실내 또는 야외 촬영으로 진행된다.

중학교 입학 예정 아동들에게 필요한 증명사진도 추가로 지원한다.

이날 첫 번째로 촬영을 마친 한 가족은 "아이들과 소중한 추억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발굴해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담양 관방제림 푸조나무, 새잎 안 나와 긴급 실태조사

동해 탓 남부수종 개엽 2~3주 지연 느티나무·팽나무 등은 큰 지장 없어

천연기념물 제366호인 담양 관방제림의 수령 300여년 아름드리 푸조나무 100여그루가 5월 중순이 지나도록 잎을 피우지 못해 관리당국이 긴급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고민에 빠졌다.

10일 담양군에 따르면 관방제림의 대표 수종가

운데 하나인 푸조나무 100여그루 중 상당수가 생육이 늦어지면서 고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방제림은 담양천 북쪽제방을 따라 2km에 걸쳐 조성된 풍치림이다. 푸조나무 103그루, 느티나무 38그루, 팽나무 9그루, 뽕나무 7그루를 비롯해 은단풍, 상수리, 곰의말채나무까지 모두 7개 수종 177그루의 천연기념물 노거수가 식재돼 있다.

이 가운데 추위에 약한 남부수종인 푸조나무가

지난해 혹한기를 거치면서 동해 피해를 입어 개엽 시기가 평년보다 2~3주 가량 늦어지면서 관리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국공립 인근 푸조나무 10여그루의 경우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등 상태가 심각하다. 추위에 강한 느티나무가 평년보다 2주 가량 먼저 싹을 틔운 것과 대조적이다.

군은 산림청 지정 나무병원에 의뢰해 정확한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꽃이 피는 시기가 늦어지는 원인 등을 파악 중이다.

주민들은 "5월 중순인데 푸조나무에 이토록 잎이 나지 않은 것은 처음"이라며 "이러다 고사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보통 5월 초순이면 연한 초록색 잎을 보였는데 올해는 지난 겨울 추위 여파 등으로 개엽이 늦어지고 있다"며 "다만, 눈이 살아 있는 등 잎이 날 가능성은 높아 현재로서는 영양제를 주입하는 등 발육 촉진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노영민 기자 nyc@kwangju.co.kr

50억 들인 장흥 '블루투어' 오토캠핑장 준공 1년 넘도록 개장조차 못한 채 방치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오토캠핑장 '블루투어'가 준공 1년이 넘도록 개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해양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총 50억원(국비 25억원, 군비25억원)을 들여 지난해 4월말 준공한 블루투어 시설물이 무용지물로 방치돼 있다. 블루투어 캠핑장은 장흥 특산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풍광으로 이용객들에게 입소문이 난 장소다.

지난해 준공돼 총 2만6293㎡ 규모의 오토캠핑장 내에 '카라반' (7개), 텐트형 '글램핑' (4개소), 캠핑데크(15개소), 쉼터광장(1개소), 숲놀이터(1개소), 관리사무소(1동), 샤워실(2동), 화장실(2동), 급수대(2개소), 주차장(31대면) 등이 자

리해 있다. 하지만 준공 1년이 넘도록 개장을 못한 채 주민 민원도 잇따르자 장흥군의회는 지난해 7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군의회는 국비지원에 급급한 나머지 허술한 사업계획으로 추진하다보니 총 사업비 50억원 가운데 진입로 공사비가 무려 50%에 해당하는 25억원이 소요돼 본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준공만 됐을 뿐 카라반내 집기(식기와 이불 등)가 마련되지 않은데다 카라반 진입로가 급경사여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이들 시설물이 보완되지 않는한 개장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준공 1년이 넘도록 개장도 못한채 방치된 블루투어 오토캠핑장.

이에 대해 박신주 장흥군 해양수산과장은 "캠핑장 부지는 해당마을 소유로 기부처리 됐으나 진입로 선정과정에 주민마찰이 빚어져 불가피하게 사유지인 진입로 개설비용(25억원)이 많이 들어 사

업에 차질이 생겼다"며 "우선 5월말 까지 집기를 마련하고 빠르면 7월 중으로 군직영 방식으로 개장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